

姜시장 “市운영 생태호텔은 아닌 것 같다”

신양파크호텔 활용 계획 재검토 방침 밝혀 “전남도와 함께 반도체 대책도 보고 드릴 것”

민선 7기 시절 광주시가 무등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매입한 신양파크호텔 활용 계획과 관련, 강 시장은 1일 “시가 운영하는 생태 호텔은 아닌 것 같다”며 재검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텔을 하려고 했으면 매입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대안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은 없다”며 “생태호텔이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생각하면 맞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활용 계획) 원점 재검토나 계약 파기 등의 내용은 아니고 광주시 자산이 된 만큼 자산 등록이 된 것 같다”며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최근 만난 동구청장도 의견을 냈지만 생태호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민선 7기와 무등산 난개발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간정위원회 의 성과는 공유하고 (광주시) 내부에서 새로운 의견이 나오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시장은 “오랜 시간 민선 7기, 민간정위원회의 성과도 있어 양쪽 다 존중한다”며 “이번 주부터 신양파크 호텔 문제 뿐 아니라 현안 등에

대해 하나하나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등산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은 호남을 대표하는 특급호텔로 2019년 말 영업한 때문에 휴업한 뒤 대규모 공동주택 건축이 추진됐다. 이후 2021년 2월 시민사회단체, 광주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무등산 난개발방지 및 신양파크호텔 공유화를 위한 민간정위원회’는 광주시가 매입해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광주시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에서 상생과제로 채택한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와 관련, “상생협의회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의제로 채택했고 이에 대한 다짐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한 수준”이라며 “반도체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조만간 전남도와 공동으로 시·

민에게 보고를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시장은 “지난달 31일 김영록 전남지사, 양향자 반도체특위 위원장과 만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특위 활동에 대응해)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선 8기 출범 한달을 맞아 강 시장은 “취임한 지 30일이 됐고 조직개편과 인사까지 한달이 걸렸다”며 “빠르기로는 잘 해온 것 같은데 방향성에 대한 답은 시민과 언론이 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가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활용 문제와 관련, 재검토에 나서는 모습이다. 사진은 1일 무등산 기슭에 자리한 동구 지산동 옛 신양파크호텔 부지. /연합뉴스

순천·보성에 ‘마을관리소’ 조성 해룡면·은림마을 공동체 편의 서비스

전남도는 1일 “행정안전부 ‘마을관리소 조성 지원사업’에 순천 ‘해룡면 마을관리소’와 보성 ‘은림마을 비밀의 숲 마을관리소’ 등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관리소 조성 지원 사업은 주거 여건이 취약한 지역 주민과 공동체에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해 주민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확정된 전국 6개소 중 전남이 2개 사업을 차지했다. 사업비는 순천 1억4천만원, 보성 1억원 등 총 2억4천만원이다.

순천 해룡면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은 전형적 농촌지역이면서 편의시설이 부족한 주거 취약지다. 이번 사업으로 20여년 전 건립된 해룡면주민자치센터를 새롭게 고쳐 생활공구·사무기기 공유센터, 주민소통방, 공유 배움터로 구성된 마을관리소를 조성한다. 이를 활용해 생활공구 무료 대여,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 공동체 가치 회복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

보성 은림마을 비밀의 숲 마을관리소는 노후 창고를 보수해 인근 3개 마을과 함께 쓰는 빨래방·공구방·농기계 공유방을 운영한다. 가구별 맞춤형 간편 수선과 어르신 대신 장보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IT)기기 사용 교육, 밀반찬 나누기 행사 등을 추진한다.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21년 전남에선 장흥 ‘용산 마을관리소’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주민 소통 공간을 마련해 취약계층 돌봄, 공구 대여 등 서비스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앞으로 우수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동작업실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신안군, 전국 유일 ‘투자선도지구’ 선정

국토부 공모 78억 확보...해남은 인구유입시설 28억

신안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됐다.

전남도는 1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서 신안군 투자선도지구와 해남군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등 2개가 확정돼 국비 총 10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인구, 인프라 등이 열악한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과 수요에 맞게 국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 유형은 투자선도지구, 지역수요 맞춤형지원사업 등 2개다.

올해 공모에선 신안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국비 78억원을 확보했다. 해남은 국비 24억원을 가져왔다.

이는 전국에서 선정된 11개 사업 총사업비 327억원의 31%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난해 공모에서 확보한 75억원보다 36%나 늘었다.

신안 자은도에는 현재 호텔, 리조트 등 숙박시설과 복합문화센터 등을 포함한 관광단지가 조성 중이다. 신안군은 이번 사업으로 진입도로, 주차

장 등 부족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해 육지와 섬을 잇는 천사대교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서남해안 거점관광지역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 개최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분야 청년층 국제교류를 활성화해, 신안을 해양휴양관광은 물론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해남에선 폐교 위기에 처한 복일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민·학교·지자체가 함께 전·입학 가구를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다. 해남군은 유입된 인구의 지역 정착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15호)과 어린이 도서관 체육관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급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호규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시·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하겠다”며 “신안의 경우 체류형 관광사업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생경제살리기 특위’ 본격 가동

위원장에 김태균 부의장 선출

전남도의회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 침체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경제 안정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김태균(더불어민주당·광양3·사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도의회 제3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같은 날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김태균 부의장, 부위원장에 이현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을 선출했다.

특위에는 김태균·이현창·박선준(더불어민주당·고흥2)·서대현(더불어민주당·여수2)·임지락(더불어민주당·화순1)·이재태(더불어민주당·나주3)·최정훈(더불어민주당·목포4)·정철(더불어



민주당·장성1)·김진남(더불어민주당·순천5)·박원중(더불어민주당·영광1)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특위는 최근 국제 정세 악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촉발된 민생 경제 위기를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살피기 위해 구성됐다.

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실태조사·지원정책 발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대책 수립 ▲유관기관·전문가 초청 토론회·세미나 ▲별도민 소비촉진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태균 민생특위 위원장은 “의회 차원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으로 도민들에게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평가 ‘전국 1위’

전남개발공사는 1일 “2022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전국 1위와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분야를 대상으로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 5개 등급으로 평가,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에서는 환경·사회·투명 경영인 ESG 경영지표 배점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사장 주도로 미래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더 청정한’, ‘더 행복한’, ‘더 투명한’ ESG 경영전략을 수립해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충실히 이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코로나19와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임직원 모두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점이 결실을 맺었다”며 “최우수 기관으로서 상생하고 소통하는 ESG 경영을 통해 도민에게 최고의 공공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주세요

-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실 도로교통법
(2022.1.1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보행자가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경우, 서행 또는 일시 정지

후원 | 광주광역시 | 익산지방경찰청 | 광주경찰청 | 광주광역시교육청 | 한국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 | 광주·전남지부 | 손해보험협회 | TS |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협찬 | GTCL |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